「취업진로연구」 제13권 제1호(통권 41호)
(사)한국취업진로학회
2023. Vol. 13, No.1, pp.147~172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3.13.1.007

논문접수일 : 2023년 02월 09일
최종수정일 : 2023년 03월 27일
게재확정일 : 2023년 03월 28일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에 관한 연구

구영애 (수원여자대학교)* · **박인숙** (진주보건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지질 및 취업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방법은 K도 J시에 소재한 J대학의 간호대학생으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총 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22년 5월 09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으로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독립표본 t검정, One-way ANOVA, DUNCAN 및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취업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및 간호사 자질이 취업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학문적으로 학과에 대한 애착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학년별 학과만족도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될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저학년때부터 자신의 목표에 맞추어 올바른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을 탐색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 태도를 형성하여 취업 후에도 조기 이직율 방지 및 직장 만족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지질 및 취업특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취업에 적합한 상담이나,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 특성.

* 제1저자, 수원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외래교수, E-mail : youngae0822@naver.com.
** 교신저자,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E-mail: profisp@naver.com, 경남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52655; Tel: 055-740-1923; Fax: 055-743-3010.

Ⅰ. 서 론

1.1 문제제기

현대 사회가 급속한 과학의 발전과 급성 감염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적재적소에 필요하면서, 간호직도 안정적으로 취업이 증가하였다(김봉희・신정아, 2016).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 구조의 변화는 간호사의 역할과 적문직의 중요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공이나 진로에 대해 탐색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조인영, 2014).

간호학과 1학년은 전공에 대해 많이 접해보지 않은 상태여서 전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조인영, 2014). 간호학과 2, 3학년의 경우에는 교내실습이나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전공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양영옥・이선옥, 2012). 간호학과 4학년은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자신의 적성이나 간호전문직의 특성, 진로를 깊게 생각하게 된다(최희정・김진숙, 2018).

직업가치관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일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와 실현을 위한 목표로서 조직의 성과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박수용・최은수, 2015; 김주 등, 2021). 직업 가치는 직업 동기 형성과 자아실현의 핵심으로 최선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간호대학생은 학과만족이 높은 학생이 직업가치관이 높다고 하였고(Kim, 2015), 직업가치관이 사람-직업 적합을 예측하는 변수이며, 직업가치를 고용여부 및 고용기간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기도 하였다(Sortheix 등, 2015).

간호사 자질은 전문직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Cowan 등, 2007), 간호교육을 평가하거나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되어왔다(김상돌, 2013). 간호사로서 갖춰야 할 성품이나 성실, 신뢰, 그리고 숙련된 기술은 꼭 필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는데 간호대학생은 전문지식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Kim, 2013).

취업관련 특성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적성이나 흥미 등의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고려보다는 타 전공에 비해 높은 취업률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을 졸업한 후 임상간호사, 지역사회 간호사, 보건교사, 연구간호사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대다수의 학생은 병원으로만 취업할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며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Kim, 2021; Jung & Kang, 2021).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최일수・신은종, 2016)는 학년별 취업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취업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계웅・한진영, 2016; 안성미・이현숙, 2020). 간호대학생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취업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태정・문미경, 2016).

청년세대의 직장 선택 시 삶의 균형수준과 행복요인을 임금 및 직장 복지로 나타났다(박미석 등, 2019). 최근 감염성 질환의 확산으로 인한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으로 상승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볼 때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 직업가치관 및 취업특성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년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몰입(이경아 · 김진현, 2015), 학년별 취업준비행동과 취업불안(최희정 · 김지숙, 2018) 학년별 진로준비행동(장태정 · 문미경, 2016)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학년별로 변화하는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관련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간호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의 자질, 직업가치관 및 취업특성을 알아보고 학년별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학생 맞춤형 진로지도를 통하여 취업 준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직업가치관과 간호사 자질이 취업특성의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은 개인의 직업에 대한 욕구와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적 행동으로 스스로 삶의 가치를 정립하여 평가하는 수단이다(장영미, 2019; 정봉희 · 오지현, 2021).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한 가치관과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고 근무 조건이 자신이 기대한 가치가 충족될 때 직장만족도가 상승하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박슬기 · 이희승, 2016).

직업가치관은 직업생활에서의 의사결정, 태도, 경험으로 이루어져 직업만족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Leuty, 2013). 가치관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추구할 수 있는 기대가 일치할수록 직업에 만족감이 상승하지만 할 가능성이 크지만 취업 후의 직업 만족과 밀

접한 관련이 있고, 시대, 환경 및 공간에 따라 변하고 있다(차재빈・이환의, 2021). 또한, 직업의 범주가 다양하고, 사람들의 바라보는 관점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개인이 보람을 느끼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은 쉽지 않다(박슬기・이희승, 2016).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직업을 결정할때 고려되는 요인(문학선・김양균, 2020)으로 간호대학생이 간호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간호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개념이다, 전문직의 미래에 희망을 품는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인 직업가치관의 형성을 위하여 내·외재적 통제를 강화가 필요하다(신승옥, 2020).

개인이 특정 직업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및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로 이를 통해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을 하는 개념으로서(문학선・김양균, 2020), 직업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직업가치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변모됐고, 개인의 직장생활에 따라 직업에 만족하는 요인이다(Son & Jung, 2019).

직업가치관은 다양한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분하여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다(김남경 등, 2019). 직업가치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업가치관을 내재적 직업가치와 외재적 작업 가치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고(복미정, 2018), 직업에 있어서 일 그 자체와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의 내재적 가치관과 일에 따르는 보상이나 조건과 결부되는 외재적 가치관으로 구분된다(김남경 등, 2019). 또한 시대에 따른 직업가치관에 대한 의미와 역할의 차이가 있고(Lee & Yu, 2013), 내적 직업가치관은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직업이 갖고 있는 보상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고, 외적 직업가치관은 직업 자체의 의미가 아닌 직업을 통하여 부수적 보상으로 수입과 지위 상승 등을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임태근・최우성, 2016).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현장에서 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로서 성장시키 위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직업가치관의 정립과 간호직에 대한 취업 특성의 파악은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2.2 간호사의 자질

간호사 자질은 전문직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이는 전문직 간호사의 질과 대상자의 만족을 높이는 기준이 되고 간호교육 평가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최경숙 등, 2016).

한국간호교육평가원(2014)은 프로그램학습성과를 간호사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하였고, 성과기반 교육체제와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체제를 함께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프로그램학습성과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성취해야할 역량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역량성취에 지속적이고 형성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고(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4), 전문직 의 길을 가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의 자질을 보장하고 간호대상자의 만족을 높이는 기준이 된다(최경숙 등, 2016).

간호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임상 실습을 경험하면서 간호사에게 필요

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배두이 · 은영, 2014).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고, 교과과정 운영상 충분한 사전의 이론적 지식이나 경험 없이 임상현장에 직면하면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봉희 · 신정아, 2016). 이에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의 자질에서 긍정적 요소를 이해한다면 자부심을 갖고 간호학 교육 및 실습에 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전문직관과 직업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Bang et al., 2011).

간호대학생이 가고자 하는 간호사의 자질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고, 같은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다른 간호대학생이 형성하고 있는 간호사의 지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며 형성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의 자질은 간호대학생에게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형성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기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의 자질과 직업가치관의 전반적인 학년별로 분석이 필요하다.

2.3 취업특성

취업특성은 개인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민하는 직업선호도 및 직업가치관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유홍준 등, 2016), 구직에 있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박연복, 2017).

취업특성에서 간호대학생은 간호라는 진로를 결정하고 입학을 하고, 타 학과보다 졸업과 동시에 전공 분야의 정규직으로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이경아 · 김진현, 2015), 입학을 하면서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하여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적은 경향이 있다(Kim, 2013). 또한, 간호사의 취업특성은 병원의 내에서 전체인력의 60%를 차지하는 큰 규모의 전문가 조직으로(김정애, 2017) 병원의 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과 인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강문희 등, 2012).

간호대학생의 취업특성은 타 학과보다 진로탐색과 취업준비가 적어 취업 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취업 환경의 이질감으로 임상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이탈로 이어지고(Kim, 2013). 높아진 이직률에 의하여 병동의 축소와 간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간호가 감소된다(병원간호사회, 2018).

간호사로 취업하여 갖게 하는 만족감은 간호사간 된 자신의 간호직에 대한 사기증진이 되고, 간호사로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며, 간호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함으로써 역량 높은 간호사로서의 자질도 갖추게 된다(김일옥 등, 2022; 박수경 · 조경미, 2016).

이에 간호대학생은 확실하게 결정 된 진로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취업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Teoh et al., 2013).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취업선호에 따라 취업을 결정하고(신명호 등, 2016), 진로준비행동(장태정 · 문미경, 2016), 전공만족도(정효주 · 채민정, 2017), 지역병원 선택에서 근무환경을 다

루는 연구(김은영・조헌아, 2018)가 이루어졌을 뿐 간호대학생의 취업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특성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진로지도 방향을 찾고, 병원으로서는 모집한 신입간호사를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3.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경남 J시에 소재한 J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학생으로 2022년 5월 09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자발로 동의한 자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과 설문지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숙지하여 참여방법을 이해한 325명을 설문지로 조사하였고,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은 박슬기와 이희승(2016)이 사용한 도구로 내재적 가치 3개(성취감, 능력발휘, 적성과 흥미), 외재적 가치 4개(급여, 경제적 안정, 명예나 지위, 근로환경)로 총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를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가치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2.2 간호사의 자질

간호사의 자질은 최경숙(2016)이 사용한 도구로 총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를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자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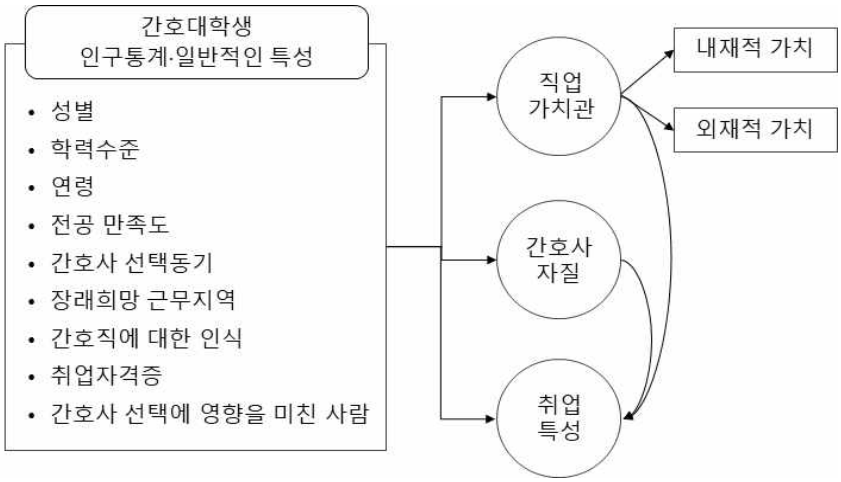
3.2.3 취업특성

취업특성은 선행연구(박수경・조경미, 2016)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을 간호학교수 3인에게 직업 평가 기준을 취업과 관련 있는 특성으로 자문을 받아 연구도구로 총 14문

항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를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관련 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3 연구과제 및 절차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4 가설설정

3.4.1.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차이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학생들과는 달리 진학과 함께 간호사라는 진로가 정해져 있다. 간호학과의 선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보다는 고등학교 때의 성적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른 취업률에 따라 전공 선택을 하게 되면 전공만족도뿐만 아니라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승옥, 2020; 김창희 · 김정이, 2020; 양혜경, 2022).

간호대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타 전공 학생보다 많은 학습과 임상실습이라는 생소한 의료기관 환경을 적응해야 하는 학과의 특성뿐만 아니라 진로결정과 준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한혜정, 2014; 주신옥, 2020).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간호사 자질, 직업가치관 및 취업특성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 차이를 파악하여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설1: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2.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

간호대학에서도 간호대학생에게 올바른 간호사의 자질을 갖추고 취업특성을 반영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 맞춤형 진로 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긍정적인 직업가치관이 확립 되어야 하며(김주 등, 2020), 올바른 직업가치관이 간호대학생이 간호직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면 이직 의도와 역할갈등과 이직 의도가 감소한다(장영미, 2019).

신규 간호사는 첫 직장인 의료기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임상현장으로 가기 전, 간호대학생 기간에 바람직한 직업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김창희・김정이, 2020).

간호사 자질은 간호사가 취업하고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능력을 의미한다(Mac et al., 2013). 간호사 자질은 간호의 질을 증진하고, 간호 대상자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전문직의 기준으로 간호목표 설정과 평가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Kim, 2013).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자질은 간호 취업특성의 전문 직관을 반영하는 중요지표이다(Bang et al., 2011).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의 자질과 취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환경 및 근로 조건 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 취업특성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간호사를 채용하는 의료기관이나 간호사가 활동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미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어떠한 기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는지 파악하여 채용조건에 적절한 인재에 대한 맞춤형 채용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직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신규 간호사의 조기 이직과 기관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의 기초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설2: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분석방법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여 검정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특성인 성별, 학력수준, 연령, 전공 만족도, 간호사 선택동기, 장래희망 근무지역, 간호직에 대한 인식, 취업자격증,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따라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DUNCAN 사후비교분석(Post hoc comparison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간호사 자질과 직업가치관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자 56명(18.7%), 여자 243명(81.3%)으로 여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학력수준을 살펴본 결과 1학년 69명(23.1%), 2학년 71명(23.7%), 3학년 69명(23.1%), 4학년 90명(30.1%)으로 취업을 앞둔 4학년이 가장 많았다. 취업자격증을 소유한 정보를 살펴본 결과 BLS자격증 61명(20.4%),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명(47.5%), 코디네이터자격증 38명(12.7%), 기타 58명(19.4%)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의 경우 보통 41명(13.7%), 만족함 41명(13.7%), 매우 만족함 217명(72.6%)으로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졸업 후에 희망근무지를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 86명(28.8%), 부산 99명(33.1%), 경상남도 114명(38.1%)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 놓았고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20살~25살 207명(69.2%), 26살~30살 47명(15.7%), 31살 이상 45명(15.1%)으로 나타났다. 간호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싫음 32명(10.7%), 보통 156명(52.2%), 좋음 111명(37.1%)으로 좋다고 응답한 사람도 많았지만 싫다는 의견을 내 놓은 학생들도 많이 나타났다. 간호사직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모님 155명(51.8%), 친구 44명(14.7%), 자매 74명(24.7%), 형제 26명(8.7%)으로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고 간호직 선택동기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명(24.1%), 전문직을 원해서 70명(23.4%),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명(21.4%),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명(8.0%),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명(15.7%), 기타 22명(7.4%)으로 간호사가 적성에 맞거나 전문직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빈도	백분율(%)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56	18.7	연령대	20살~25살	207	69.2
	여자	243	81.3		26살~30살	47	15.7

	합계	299	100.0		31살 이상	45	15.1
학력 수준	1학년	69	23.1		합계	299	100.0
	2학년	71	23.7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	32	10.7
	3학년	69	23.1		보통	156	52.2
	4학년	90	30.1		좋음	111	37.1
	합계	299	100.0		합계	299	100.0
취업 자격증	BLS자격증	61	20.4	간호사직 선택 영향	부모님	155	51.8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	47.5		친구	44	14.7
	코디네이터자격증	38	12.7		자매	74	24.7
	기타	58	19.4		형제	26	8.7
	합계	299	100.0		합계	299	100.0
전공 만족도	보통	41	13.7	선택 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	24.1
	만족함	41	13.7		전문직을 원해서	70	23.4
	매우 만족함	217	72.6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	21.4
	합계	299	100.0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	8.0
희망 근무지	서울지역	86	28.8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	15.7
	부산	99	33.1		기타	22	7.4
	경상남도	114	38.1		합계	299	100.0
	합계	299	100.0				

4.2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위한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값이 0.85로 0.8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에 대한 근사 카이제곱 값이 3938.57,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정이 충족되었고 요인부하량이 0.4이상으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된 간호사 자질 6개 문항, 간호사에 대한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 3개 문항, 외재적 가치 4개 문항, 취업특성 8개 문항으로 잘 묶이고 분류됨을 알 수 있다. 68.21%의 누적분산으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이 검정됨을 알 수 있다.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을 검정한 결과 간호사 자질에 대한 Cronbach's Alpha값이 0.89,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 0.86, 외재적 가치 0.74, 취업특성 0.91로 0.7이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검정됨을 알 수 있다(Nunnally & Bernstein, 1994).

<표 2>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항목	취업 특성	간호사의 자질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공통성	Cronbach의 알파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성취감을 중요시함			0.93		0.87	0.86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능력 발휘를 중요시함			0.82		0.73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적성과 흥미를 중요시함			0.85		0.75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급여를 중요시함				0.71	0.58	0.74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경제적 안정을 중요시함				0.84	0.75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명예나 지위를 중요시함				0.76	0.64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근로환경을 중요시함				0.63	0.43	
교육 연구 능력		0.55			0.65	0.89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0.81			0.70	
동료와의 협조적 관계 형성		0.85			0.77	
건강한 신체		0.77			0.71	
직업윤리		0.86			0.78	
유머감각		0.83			0.69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직업	0.65				0.68	0.91
능력을 발휘하고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0.86				0.76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0.81				0.70	
여가 시간이 많은 직업	0.80				0.66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직업	0.64				0.48	
창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는 직업	0.77				0.76	
사회적 인식이 좋은 직업	0.71				0.58	
직장 분위기와 인간관계가 좋은 직업	0.79				0.67	
고유값	4.99	4.06	2.85	2.43		
% 분산	23.78	19.32	13.56	11.55		
% 누적분산	23.78	43.10	56.66	68.21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0.8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근사 카이제곱=3938.57, 자유도=210, 유의확률=0.000***						

※ *: p<0.1, **: p<0.05, ***: p<0.01

4.3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 차이검정 결과

4.3.1.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검정 결과

간호대학생의 특성인 성별 남자(M=4.39), 여자(M=4.19)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t값 3.16, p값 0.002***), 학력수준 1학년(M=4.02, L), 2학년(M=4.12, L), 3학년(M=4.26, M), 4학년(M=4.44, H)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F값 15.46, p값 0.000***), 연령 20살~25살(M=4.16, L), 26살~30살(M=4.35, H), 31살 이상(M=4.40, H)(F값 7.86, p값 0.000***), 전공 만족도 보통(M=4.17, L), 만족함(M=4.47, H), 매우 만족함(M=4.19, L)(F값 7.58, p값 0.001***),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M=4.27, HL), 전문직을 원해서(M=4.20, L),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M=4.10, L),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M=4.10,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M=4.45, H), 기타(M=4.24, L)(F값 4.18, p값 0.001***),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M=4.22, HL), 부산(M=4.14, L), 경상남도(M=4.30, H)(F값 3.43, p값 0.034**),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M=4.59, L), 보통(M=4.20, L), 좋음(M=4.17, H)(F값 13.02, p값 0.000***), 취업자격증 BLS자격증(M=4.45, H), 토익 등 외국자격증(M=4.24, M), 코디네이터자격증(M=4.25, M), 기타(M=3.95, L)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F값 14.73, p값 0.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에 대한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별, 학력수준, 연령, 전공 만족도, 간호사 선택동기, 장래희망 근무지역, 간호직에 대한 인식, 취업자격증에 따라 직업가치관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 3>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검정 결과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p값)	평균편차/사후검정
성별	남자	56	4.39	0.31	3.16	0.002***	0.21
	여자	243	4.19	0.46			
학력수준	1학년	69	4.02	0.49	15.46	0.000***	L
	2학년	71	4.12	0.37			L
	3학년	69	4.26	0.51			M
	4학년	90	4.44	0.29			H
	합계	299	4.23	0.44			
연령	20살~25살	207	4.16	0.46	7.86	0.000***	L
	26살~30살	47	4.35	0.35			H
	31살 이상	45	4.40	0.37			H
	합계	299	4.23	0.44			
전공 만족도	보통	41	4.17	0.40	7.58	0.001***	L
	만족함	41	4.47	0.38			H
	매우 만족함	217	4.19	0.45			L
	합계	299	4.23	0.44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	4.27	0.36	4.18	0.001***	HL
	전문직을 원해서	70	4.20	0.46			L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	4.10	0.48			L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	4.10	0.46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	4.45	0.37			H
	기타	22	4.24	0.50			L
	합계	299	4.23	0.44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	86	4.22	0.51	3.43	0.034**	HL
	부산	99	4.14	0.42			L
	경상남도	114	4.30	0.40			H
	합계	299	4.23	0.44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	32	4.59	0.12	13.02	0.000***	L
	보통	156	4.20	0.42			L
	좋음	111	4.17	0.49			H
	합계	299	4.23	0.44			
취업자격증	BLS자격증	61	4.45	0.31	14.73	0.000***	H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	4.24	0.47			M
	코디네이터자격증	38	4.25	0.33			M
	기타	58	3.95	0.43			L
	합계	299	4.23	0.44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	155	4.21	0.49	2.02	0.111	
	친구	44	4.13	0.38			
	자매	74	4.29	0.41			
	형제	26	4.35	0.27			
	합계	299	4.23	0.44			

※ 종속변수 : 직업가치관, *: p<0.1, **: p<0.05, ***: p<0.01, 사후검정(Duncan) : H > M > L

4.3.2.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 차이검정 결과

간호대학생의 특성인 성별 남자(M=4.50), 여자(M=4.08)에 따른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 차이(t값 4.35, p값 0.000***), 학력수준 1학년(M=3.82, L), 2학년(M=4.11, M), 3학년(M=4.23, M), 4학년(M=4.41, H)(F값 11.86, p값 0.000***), 연령 20살~25살(M=4.09, L), 26살~30살(M=4.29, H), 31살 이상(M=4.32, H)(F값 3.16, p값 0.044**), 전공 만족도 보통(M=4.07, L), 만족함(M=4.46, H), 매우 만족함(M=4.12, L)(F값 5.22, p값 0.006***),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M=4.33, H), 전문직을 원해서(M=4.18, M),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M=3.87, L),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M=3.75,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M=4.49, H), 기타(M=4.12, M)(F값 8.43, p값 0.000***),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M=4.27, H), 부산(M=4.21, HL), 경상남도(M=4.03, L)(F값 3.56, p값 0.030**),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M=4.61, L), 보통(M=3.97, M), 좋음(M=4.29, H)(F값 17.23, p값 0.000***), 취업자격증 BLS자격증(M=4.41, H), 토익 등 외국자격증(M=4.23, H), 코디네이터자격증(M=4.29, H), 기타(M=3.63, L)(F값 18.61, p값 0.000***),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M=4.27, M), 친구(M=3.78, L), 자매(M=4.02, L), 형제(M=4.55, H)에 따른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 차이(F값 11.51, p값 0.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내재적 가치에 대한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별, 학력수준, 연령, 전공 만족도, 간호사 선택동기, 장래희망 근무지역, 간호직에 대한 인식, 취업자격증,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따라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 차이검정 결과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p값)	평균편차/사후검정
성별	남자	56	4.50	0.41	4.35	0.000***	0.42
	여자	243	4.08	0.69			
학력수준	1학년	69	3.82	0.77	11.86	0.000***	L
	2학년	71	4.11	0.69			M
	3학년	69	4.23	0.57			M
	4학년	90	4.41	0.49			H
	합계	299	4.16	0.67			
연령	20살~25살	207	4.09	0.65	3.16	0.044**	L
	26살~30살	47	4.29	0.69			H
	31살 이상	45	4.32	0.68			H
	합계	299	4.16	0.67			
전공 만족도	보통	41	4.07	0.63	5.22	0.006***	L
	만족함	41	4.46	0.53			H
	매우 만족함	217	4.12	0.68			L
	합계	299	4.16	0.67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	4.33	0.41	8.43	0.000***	H
	전문직을 원해서	70	4.18	0.64			M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	3.87	0.66			L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	3.75	0.90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	4.49	0.51			H
	기타	22	4.12	0.90			M
	합계	299	4.16	0.67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	86	4.27	0.51	3.56	0.030**	H
	부산	99	4.21	0.61			HL
	경상남도	114	4.03	0.79			L
	합계	299	4.16	0.67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	32	4.61	0.17	17.23	0.000***	L
	보통	156	3.97	0.77			M
	좋음	111	4.29	0.48			H
	합계	299	4.16	0.67			
취업자격증	BLS자격증	61	4.41	0.54	18.61	0.000***	H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	4.23	0.62			H
	코디네이터자격증	38	4.29	0.45			H
	기타	58	3.63	0.75			L

	합계	299	4.16	0.67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	155	4.27	0.52	11.51	0.000***	M
	친구	44	3.78	0.68			L
	자매	74	4.02	0.84			L
	형제	26	4.55	0.43			H
	합계	299	4.16	0.67			

※ 종속변수 : 내재적 가치, *: p<0.1, **: p<0.05, ***: p<0.01, 사후검정(Duncan) : H > M > L

4.3.3.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인 외재적 가치 차이검정 결과

간호대학생의 특성인 학력수준 1학년(M=4.23, L), 2학년(M=4.12, L), 3학년(M=4.30, HL), 4학년(M=4.48, H)(F값 5.39, p값 0.001***), 연령 20살~25살(M=4.23, L), 26살~30살(M=4.42, HL), 31살 이상(M=4.48, H)(F값 4.72, p값 0.010**), 전공 만족도 보통(M=4.28, L), 만족함(M=4.48, H), 매우 만족함(M=4.26, L)(F값 2.42, p값 0.091*),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M=4.17, L), 부산(M=4.08, L), 경상남도(M=4.57, H)(F값 24.18, p값 0.000***),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M=4.57, L), 보통(M=4.42, H), 좋음(M=4.04, H)(F값 19.17, p값 0.000***), 취업자격증 BLS자격증(M=4.50, H), 토익 등 외국자격증(M=4.24, L), 코디네이터자격증(M=4.20, L), 기타(M=4.26, L)(F값 3.37, p값 0.019**),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M=4.14, L), 친구(M=4.48, H), 자매(M=4.56, H), 형제(M=4.15, L)에 따른 직업가치관인 외재적 가치 차이(F값 11.36, p값 0.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외재적 가치에 대한 차이를 검정한 결과 학력수준, 연령, 전공 만족도, 장래희망 근무지역, 간호직에 대한 인식, 취업자격증,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따라 직업가치관인 외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인 외재적 가치 차이검정 결과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p값)	평균편차/사후검정
성별	남자	56	4.29	0.31	-0.07	0.944	-
	여자	243	4.30	0.64			
학력수준	1학년	69	4.23	0.65	5.39	0.001***	L
	2학년	71	4.12	0.69			L
	3학년	69	4.30	0.68			HL
	4학년	90	4.48	0.21			H
	합계	299	4.30	0.59			
연령	20살~25살	207	4.23	0.66	4.72	0.010**	L
	26살~30살	47	4.42	0.31			HL
	31살 이상	45	4.48	0.38			H
	합계	299	4.30	0.59			
전공만족도	보통	41	4.28	0.68	2.42	0.091*	L
	만족함	41	4.48	0.44			H

	매우 만족함	217	4.26	0.59			L
	합계	299	4.30	0.59			
간호사 선택 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	4.20	0.50	1.27	0.277	-
	전문직을 원해서	70	4.22	0.66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	4.33	0.68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	4.44	0.45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	4.40	0.43			
	기타	22	4.35	0.71			
	합계	299	4.30	0.59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	86	4.17	0.58	24.18	0.000***	L
	부산	99	4.08	0.58			L
	경상남도	114	4.57	0.49			H
	합계	299	4.30	0.59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	32	4.57	0.17	19.17	0.000***	L
	보통	156	4.42	0.58			H
	좋음	111	4.04	0.59			H
	합계	299	4.30	0.59			
취업자격증	BLS자격증	61	4.50	0.22	3.37	0.019**	H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	4.24	0.67			L
	코디네이터자격증	38	4.20	0.55			L
	기타	58	4.26	0.63			L
	합계	299	4.30	0.59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	155	4.14	0.68	11.36	0.000***	L
	친구	44	4.48	0.36			H
	자매	74	4.56	0.45			H
	형제	26	4.15	0.21			L
	합계	299	4.30	0.59			

※ 종속변수 : 외재적 가치, *: p<0.1, **: p<0.05, ***: p<0.01, 사후검정(Duncan) : H > M > L

4.3.4.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사 자질 차이검정 결과

간호대학생의 특성인 학력수준 1학년(M=3.78, L), 2학년(M=3.93, M), 3학년(M=4.00, M), 4학년(M=4.71, H)(F값 76.72, p값 0.000***), 연령 20살~25살(M=4.09, L), 26살~30살(M=4.52, H), 31살 이상(M=3.99, L)(F값 14.10, p값 0.000***),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M=4.38, H), 전문직을 원해서(M=4.00, L),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M=4.17, ML),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M=3.90,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M=4.10, ML), 기타(M=4.15, M)(F값 4.68, p값 0.000***),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M=4.07, L), 부산(M=4.03, L), 경상남도(M=4.31, H)(F값 7.99, p값 0.000***), 취업자격증 BLS자격증(M=4.59, H), 토익 등 외국자격증(M=3.89, L), 코디네이터자격증(M=4.64, H), 기타(M=3.99, L)에 따른 간호사 자질 차이(F값 48.30, p값 0.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자질에 대한 차이를 검정한 결과 학력수준, 연령, 간호사 선택동기, 장래희망 근무지역, 취업자격증에 따라 간호사 자질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사 자질 차이검정 결과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p값)	평균편차/사후검정
성별	남자	56	4.16	0.59	0.26	0.798	-
	여자	243	4.14	0.57			
학력수준	1학년	69	3.78	0.55	76.72	0.000***	L
	2학년	71	3.93	0.48			M
	3학년	69	4.00	0.11			M
	4학년	90	4.71	0.43			H
	합계	299	4.15	0.57			
연령	20살~25살	207	4.09	0.56	14.10	0.000***	L
	26살~30살	47	4.52	0.56			H
	31살 이상	45	3.99	0.45			L
	합계	299	4.15	0.57			
전공 만족도	보통	41	4.09	0.57	0.32	0.724	-
	만족함	41	4.18	0.47			
	매우 만족함	217	4.15	0.59			
	합계	299	4.15	0.57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	4.38	0.50	4.68	0.000***	H
	전문직을 원해서	70	4.00	0.39			L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	4.17	0.53			ML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	3.90	0.62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	4.10	0.79			ML
	기타	22	4.15	0.55			M
	합계	299	4.15	0.57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	86	4.07	0.58	7.99	0.000***	L
	부산	99	4.03	0.64			L
	경상남도	114	4.31	0.46			H
	합계	299	4.15	0.57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	32	4.29	0.44	1.64	0.196	-
	보통	156	4.10	0.55			
	좋음	111	4.17	0.62			
	합계	299	4.15	0.57			
취업자격증	BLS자격증	61	4.59	0.47	48.30	0.000***	H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	3.89	0.40			L
	코디네이터자격증	38	4.64	0.55			H
	기타	58	3.99	0.55			L
	합계	299	4.15	0.57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	155	4.10	0.60	1.47	0.222	-
	친구	44	4.09	0.66			
	자매	74	4.25	0.43			
	형제	26	4.21	0.53			
	합계	299	4.15	0.57			

※ 종속변수 : 간호사의 자질, *: p<0.1, **: p<0.05, ***: p<0.01, 사후검정(Duncan) : H > M > L

4.3.5.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특성 차이검정 결과

간호대학생의 특성인 성별 남자(M=4.54), 여자(M=4.30)(t값 2.96, p값 0.003***), 학력수준 1학년(M=3.78, L), 2학년(M=4.37, M), 3학년(M=4.55, H), 4학년(M=4.61, H)(F값 55.55, p값 0.000***), 연령 20살~25살(M=4.29, L), 26살~30살(M=4.56, H), 31살 이상(M=4.39, HL)(F값 4.94, p값 0.008***),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M=4.56, H), 전문직을 원해서(M=4.24, ML),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M=4.44, HM),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M=4.03,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M=4.48, H), 기타(M=3.77, L)(F값 12.50, p값 0.000***), 취업자격증 BLS자격증(M=4.54, HM), 토익 등 외국자격증(M=4.43, M), 코디네이터자격증(M=4.66, H), 기타(M=3.74, L)(F값 48.88, p값 0.000***),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M=4.49, H), 친구(M=4.38, H), 자매(M=3.99, L), 형제(M=4.48, H)에 따른 취업특성 차이(F값 17.45, p값 0.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특성에 대한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별, 학력수준, 연령, 간호사 선택동기, 취업자격증,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따라 취업특성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 7>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특성 차이검정 결과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p값)	평균편차/사후검정
성별	남자	56	4.54	0.40	2.96	0.003***	0.23
	여자	243	4.30	0.55			
학력수준	1학년	69	3.78	0.56	55.55	0.000***	L
	2학년	71	4.37	0.32			M
	3학년	69	4.55	0.46			H
	4학년	90	4.61	0.37			H
	합계	299	4.35	0.54			
연령	20살~25살	207	4.29	0.55	4.94	0.008***	L
	26살~30살	47	4.56	0.46			H
	31살 이상	45	4.39	0.52			HL
	합계	299	4.35	0.54			
전공 만족도	보통	41	4.48	0.48	1.68	0.188	-
	만족함	41	4.36	0.47			
	매우 만족함	217	4.32	0.56			
	합계	299	4.35	0.54			
간호사 선택동기	간호사가 적성에 맞아서	72	4.56	0.38	12.50	0.000***	H
	전문직을 원해서	70	4.24	0.45			ML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64	4.44	0.51			HM
	대학입학 시험 성적에 맞아서	24	4.03	0.72			L
	가족, 친지, 주변의 권유로	47	4.48	0.57			H
	기타	22	3.77	0.41			L
	합계	299	4.35	0.54			

장래희망 근무지역	서울지역	86	4.41	0.53	1.01	0.364	-
	부산	99	4.34	0.54			
	경상남도	114	4.30	0.54			
	합계	299	4.35	0.54			
간호직에 대한 인식	싫음	32	4.45	0.38	2.29	0.103	-
	보통	156	4.29	0.60			
	좋음	111	4.40	0.46			
	합계	299	4.35	0.54			
취업자격증	BLS자격증	61	4.54	0.39	48.88	0.000***	HM
	토익 등 외국자격증	142	4.43	0.45			M
	코디네이터자격증	38	4.66	0.31			H
	기타	58	3.74	0.52			L
	합계	299	4.35	0.54			
간호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님	155	4.49	0.44	17.45	0.000***	H
	친구	44	4.38	0.75			H
	자매	74	3.99	0.44			L
	형제	26	4.48	0.41			H
	합계	299	4.35	0.54			

※ 종속변수 : 취업특성, *: p<0.1, **: p<0.05, ***: p<0.01, 사후검정(Duncan) : H > M > L

가설1: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관(F값 14.73, p값 0.000***), 간호사 자질(F값 48.30, p값 0.000***), 취업특성(F값 17.45, p값 0.000***)에 나타나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1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관, 간호사 자질, 취업특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직업가치관이 간호사의 자질과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한 분산분석표의 F값이 30.63,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검정되었고 회귀식의 설명력 또한 R제곱 0.24, 수정된 R제곱 0.23으로 최소 23%의 설명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고 회귀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인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값이 1.66으로 2에 가깝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진단결과 공차(Tolerance)가 0.96이나 1로 0.1에 가깝고 분산확대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정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

가설2: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β=0.16, t값=3.13, p값=0.002***, 공차=1.00, VIF=1.00)와 외재적 가치(β=0.17, t값=3.25, p값=0.001***, 공차=0.96, VIF=1.05) 및 간호사 자질(β=0.47, t값=8.98, p값=0.000***, 공차=0.96, VIF=1.05)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2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p값)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73	0.29		5.94	0.000		
직업가치관	내재적 가치	0.13	0.04	0.16	3.13	0.002***	1.00	1.00
	외재적 가치	0.15	0.05	0.17	3.25	0.001***	0.96	1.05
간호사의 자질		0.44	0.05	0.47	8.98	0.000***	0.96	1.05
F값=30.63, 유의확률=0.000***, R제곱=0.24, 수정된 R 제곱=0.23, Durbin-Watson=1.66								

※ 종속변수: 취업특성, *: p<0.1, **: p<0.05, ***: p<0.01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직업가치관과 간호사 자질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K도 J시에 소재한 J대학의 1학년부터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09일부터 5월 13일까지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수집 된 자료는 SPSS 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직업가치관(F값 14.73, p값 0.000***), 간호사 자질(F값 48.30, p값 0.000***), 취업특성(F값 17.45, p값 0.000***)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인구·일반적인 특성에서 학력수준, 연령, 간호사 선택동기, 취업자격증은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 모두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에 대한 같은 도구에 대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전공 선택동기가 긍정적일수록 취업에 대한 주도적 준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Lee & Lee, 2018; Jeon, 2015)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직업가치관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이 채택되어 직업가치관인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취업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재적 가치가 내재적 가치 보다 취업특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자질(β=0.47, t값=8.98, p값=0.000***, 공차=0.96, VIF=1.05)이 취업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기 때문에 가설이 채택되어 간호사의 자질이 취업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직을 전문직으로 인지하고 직업가치를 높게 판단함으로써 간호직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좋은 근로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아니지만 의약계열, 교육계열, 인문계열, 및 예체능계열로 구분한 선행연구(조윤서, 2013)에서 의약계열 학생이 외재적 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시사점은 간호대학생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학과에 대한 애착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학년별 학과만족도 중재프로그램이 기초자료가 될수 있다. 또한, 직업 가치관에서 외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 할 수 있다.

둘째, 실무적 시사점은 간호학과의 특성상 간호사라는 직업이 결정하고 전공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저학년 때부터 자신의 목표에 맞추어 올바른 간호사의 자질, 직업가치관 및 취업특성을 탐색하여 진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에 취업 후에도 조기 이직을 하지 않고 직장에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 전략 자료로 제공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를 두어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자질 및 취업특성을 학년별로 파악하고, 저학년부터 조기 취업준비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 생활 상담과 진로 지도를 할 때 학생들의 변화된 취업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교육에 있어 간호기술과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의사소통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 실무 교육에서는 학생지도에서 변화된 직업관에 맞는 면담이거나 아니면 간호 취업특성에 맞는 전문직관이나 윤리관 교육이 더 강화 되어야 한다. 간호 취업특성과 간호사 자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고 이것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후 지속적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강명숙・방은령(2015),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2(4), 21-46.

강영숙・이은정(2006),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북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 1-22.

강인향・이해숙(2008), “어머니의 DISC행동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유아의 인성지능발달의 차이”, **아동교육**, 17(1), 55-67.

구미선(2014), **미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계현 ·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 학부 만족의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 7-20.

김기선(2007), **다양한 인적성검사 무엇이 있나**, 세계일보, 2007. 08. 22.

김도연(2016), **영업사원의 DISC행동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희(2003), **DISC 행동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자녀양육행동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상식(2019), **농업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진로정체감 및 취업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언희 · 김병석(2017), “경력단절여성의 역할지향성에 따른 직업가치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학력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7(11), 173-193.

김영희 · 이건웅 · 이승철(2012), **DISC: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행동의 4가지 특성**, 서울: 학이시습.

김원형(2002), “모교 동일시에 대한 탐색적 비교 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5(2), 25-45.

김윤영 · 백영화 · 박기현 · 유종향 · 장은수(2012), “사무직 근로자의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1(2), 98-107.

김은정 · 박사라 · 임성범(2022), “전공 선택동기, 코로나-19불안,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통합의학회지**, 10(4), 49-56.

김이연(2016), **SNS 이용자의 DISC 행동유형별 이용행태와 자기노출정도가 대인 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희(2021),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행동, 직무적합성, 첫일자리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미 · 유선희 · 리순화(2019), “Effects of DISC Behavior Types on Education Recognition, Satisfaction and Job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융합정보논문지**, 9(10), 254-263.

김현주(2013), **모델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성별 및 교육과정 차이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주 · 도승이(2009),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전공수업 중 몰입경험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학교심리와 학습컨설팅**, 1(2), 15.

도유정(2017), **치과위생사의 DISC 행동유형이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인오 · 이경완(20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83-91.

박수미(2015), **항공서비스관련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정희(2022), **항공서비스학과의 교육서비스품질이 지각된 유용성, 전공만족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주연 · 김수잔(2016), “휘트니스센터 회원의 DISC행동유형에 따른 지도방식에 대한 만족의 차이”, **한국체육학회지**, 55(2), 337-347.

송윤정 · 조규판(201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355-374.
양현주・김정희(2020), "보육교사의 DISC행동유형이 조직풍토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4), 117-136.
어윤경・김동일・정여주・이주영(2011), "대학생용 취업준비행동 검사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17(3), 267-291.
우선화(2012),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연화・임경애(2011), "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생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1), 461-484.
윤은규(2008), "B2B 영업사원의 DISC 행동유형이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경영개발연구**, 1(1), 207-238.
윤정헌(2013), "관광전공 선택요인, 전공만족 및 학습태도와 성취도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25(4), 239-257.
이나영(2011), **4년제 대학 여대생의 전공 계열별 취업준비행동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재(2004),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정체감, 성고정관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숙・이은희(2014), "메디컬 에스테티션의 DISC 행동유형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용예술경영연구**, 8(1), 45-57.
이민식(2011), **고객 DISC 유형별 선호요인과 NPS에 미치는 추천요인 고찰: 패션란제리 업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로(1994), **자격연수교재(1994교도교사)**, 대구: 대구교원연수원.
이승구・이제경(2008), "한국 대학생의 취업목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첫 직장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1-25.
이연주(2019), "국내 DISC행동유형 연구의 동향과 과제: 2004년부터 2019년 국내 학술지 기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277-294.
이영민・이수영(2010), "대학 이공계열 전공 여학생의 취업준비행동 분석: 취업 후 고용형태와 근무기관 유형을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6(2), 77-98.
이용화(2015), "DISC 행동 유형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2), 523-538.
이윤주(2021), "대학모델전공자의 DISC행동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수업참여도의 차이", **한국모델콘텐츠학회지**, 2(2), 73-82.
이은희・최호규・진영권(2019),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의 Big 5 성격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리뷰**, 10(2), 169-189.
이제경・이승구(2007), "취업 청소년의 진로기대 및 취업준비행동", **진로교육연구**, 20(3), 121-137.
이제경(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심리적 특성 및 개인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제경・김동일(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발달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107-123.
이지원・이기학(2015),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진로결정몰입과 전공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53-976.
이창준(2002), **재미있는 사람읽기**, 서울: GUGU-People's.
이현실・심은경(2014), "DISC 행동유형이 미용전공대학생의 교육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0(3), 438-446.
이형룡・박슬기(2010), "호텔・외식・관광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외식경영학회**, 13(1), 79-105.
임용수(1993),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본 대학생들의 진로사회화 과정에 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9, 107-129.
임은미・박승민・엄영숙(2009),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대학 전공만족도, 전공 및 직장선택기준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6(10), 33-50.
임준용(2016), **신협직원의 DISC 행동유형에 따라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웅상(2020), **실용음악전공 학생의 전공 만족도,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진영・바트소리바상후・박지은(2021),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종사자의 DISC 행동유형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5), 183-190.
전연진, 2008).
전은경・장은영・이규혜(2001), "의류학 관련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전공 만족 요인 구조적 모형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5(9), 1614-1620.
정민주・박인혜(2015),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7(1), 213-232.
조현우・최준호・홍원화(2015), "DISC 행동유형 검사를 통한 인간의 피난행동절차와 패턴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추계), 93-94.
지계웅・한진영(2016), "4년제 대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 비교연구: C대학을 사례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6), 33-41.
진성희・성은모(2012), "고등교육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공학계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1(1), 1-18.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컨설팅연구소(2002), **DISC 강사과정 교재 및 매뉴얼**, 서울: 한국교육컨설팅 연구소.
한예정・이종호(2013),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9(2), 76-92.
황정희・김영택・이석근(2018),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25(1), 157-179.

Ali, A., & Ahmad, I.(2011), "Key factors for determining student satisfaction is distance learning courses: A Study of Allama Iqbal Open University", *Contemporary Educational Technology*, 2(2), 118-134.
Kanfer, R., Wanberg, C. R., & Kantrowitz, T. M.(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hchology*, 86(5), 837.
Lent, R. W., & Brown, S. D.(2006), "On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social cognitive constructs in career research: A measurement guid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1), 12-35.
Lent, R. W., Singley, D., Sheu, H. B., Schmidt, J. A. & Schmidt, L. C.(2007), "Relation of social-cognitive factors to academic satisfaction i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87-97.

Logue, C. T.(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Ph. D. The University of Tennessee.

Milsom, A. & Coughlin, J.(2015), "Satisfaction with college major: A grounded theory study", *The Journal of the National Academic Advising Association*, 35(2), 5-14.

Nunnally, J. C. & Bernstein, I. H.(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Y: McGraw-Hill.*

Sanders, J. V., Nee & S. Sern구며(2002), "Asian immigrants' reliance on social ties in a multiethnic labor market", *Social Forces*, 81(1), 281-314.

Sovet, L., Park, M. S., & Jung, S.(2014), "Validation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Academic Major Satisfaction Scale among KoreanCollege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9(2), 1121-1131.

Steffy, B. D., Shaw, K. L., & Noe, A. W.(1989),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job search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35, 254-269.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3, No. 1 - March 2023

A Study on Occupational Values, Nurses' Qualities Perceived and Job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Yeong-Ae Ku
Suwon Women's University, Gyeongi-do, Korea
In-Suk Park*
Jinju Health College, Gyeongsangnam-do,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occupational values, geography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nurs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This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from May 09 to May 13, 2022 with a total of 299 nursing students at J University located in J City, K Province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DUNCA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Win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occupational values, nurses' qualifications,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Second, it was found that intrinsic and extrinsic values, which are occupational values, and nurse qualificatio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characteristic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the basic data for an intervention program for department satisfaction by grade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so that they can have attachment and interest in the department academically. By exploring the qualifications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nurses, it is possible to form a career attitude suitable for oneself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venting early turnover and job satisfaction even after employment.

Based on this study, continuous research is suggested to provide counseling and career guidance suitable for employment,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occupational values, geology,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 Nursing Professionalism Value, Nurses' Qualities Perceived, Job characteristics.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51, Uibyeong-ro, Jinju, Gyeongsangnam-do, 52655, Korea. E-mail: profisp@naver.com; Tel: +82-55-740-1923; Fax: +82-55-743-3010.